



증례 III-1

Konus telescopic denture를 이용한 부분 무치악 수복 증례

이승현*, 신상완, 서규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치과학교실 보철과

부분적으로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 생각 할 수 있는 보철 치료 방법은 크게 fixed bridge, 국소 의치, implant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clasp를 이용한 국소의치는 심미적인 문제와 의치의 유동성에 의한 지대치 의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치주 상태가 불량하고 소수치아가 불연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clasp 국소의치에 의하여 잔존 치아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Konus crown을 이용한 denture의 경우 잔존 치아를 2차 고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외관의 유지력의 조절 가능성, 내외관 유지력의 장기간 안정, 우수한 위생 상태, 심미성, 잔존 치조제의 적은 흡수, 수리의 용이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공 과정의 까다로움과 장기간 장착시 유지력 상실, 지대치의 치경부에 undercut이 생길 수 있어 치태침착의 가능성, 외

관의 overcontouring 가능성, 전치부에서 치경부에 금속 노출의 가능성, 그리고 외관 철거시 내관의 금속 노출로 인한 비심미성 등의 단점도 있다.

본 증례는 초진 시 심하게 진행된 치주 질환으로 인해 다수의 치아를 발거해야 했고 발치후 상악에는 우측 견치, 하악에는 양쪽 견치와 좌측 측절치가 남은 상태였다.

상악의 경우 치근만을 남겨 치근대 치관비를 개선하고 심미성을 위하여 피개의치를 제작 하였다. 하악의 경우 각 치아를 지대치 형성 후 내관을 제작하였으며 konus coping을 이용하여 수직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측방력에 저항 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konus telescope의 사용으로 잔존 치아뿐만 아니라 치조제의 지지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었고 심미적으로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